

## 우리에게 좋은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 정연실 교사 / 2003. 6. 24 -

만약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집에 와서 입어 보니 옷이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키를 키우고 살을 찐 다음에 입겠습니까? 다시 가서 바꾸겠습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국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참으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옷으로 교환할 것이고, 식당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보상을 받겠지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와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저희 미디어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잔인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나중에도 계속 생각이 나서 무섭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참고 넘어가거나 다음부터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당장 바꾼다", "주인에게 따진다"라며 흥분해서 대답했음에도 말이지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디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생산해내는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주체가 생산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는 제작자의 의도대로, 자본주의의 원리대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하는 미디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청률을 위해서는 사람의 인격이 무시되는 프로그램도, 자극적인 장면으로 가득 찬 프로그램도 용서가 됩니다. 인터넷에 어떤 사진을 올려도, 어떤 글을 올려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이가 보든, 어른이 보든 조회수와 다운로드 수만 높아지면 만족하게 됩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어떤 문화든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디어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미디어부 아이들과 함께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스 패트롤(Youth Patrol)' 활동입니다. 유스 패트롤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환경과 문화를 스스로의 힘으로 정화시키고자 하는 청소년 활동입니다. 스스로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환경들을 감시하고 고발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청소년 권리 찾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폭력으로 가득 찬 TV 프로그램의 경우,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꼭 참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 바꾸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스 패트롤 활동은 미디어수업의 일부였지만, 기존의 미디어수업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사가 동기부여만 했을 뿐, 대부분의 활동은 아이들 스스로의 의견을 통해 진행되었습

니다. 문제 의식을 느낀 프로그램이 있다면, 방송국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항의 편지를 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설문조사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갈피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깨끗한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하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열정을 보면서 미디어교육의 희망이 여기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학교 안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이용하고 만들어내는 미디어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사실 미디어산업 구조를 생각할 때, 이러한 활동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위에 계란의 흔적이 남듯이 분명히 이 시대의 미디어와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개의 계란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계란이라면 분명히 바위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이 문화를 그 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미디어, 그리고 좋은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